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책을 볼 때는 다만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가라앉혀 이치가 담긴 곳을 찬찬히 살펴야 한다. 취할 만하면 비록 세속 보통사람의 말이라도 폐하지 않는다.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성현의 말씀으로 전해 온다 해도 또한 다시금 살펴 가려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의미가 차분해지고 이치가 명백해져서 받은 실지를 딛고 행동에 의거함이 있게 되니, 통발에 걸려 스스로를 속이는 근심이 없다.
 - 양응수, 「위학대요(爲學大要)」 -

(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종일 배불리 먹고서도 마음 쓰는 곳이 없다면 딱한 노릇이다. 장기나 바둑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 선유(先儒)*가 말했다. “성인께서 사람들에게 장기나 바둑을 가르치신 게 아니다. 다만 마음 쏟는 바가 없는 것이 해로움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고 공평해서 폐단이 없다. 누르고 올림에도 지나친 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을 바둑이나 장기 두는 무리에게 듣게 한다면 어찌 핑계거리가 되기에 충분치 않겠는가? 대저 공자의 시대에는 후세와 같은 도박의 풍조는 없었다. 학문의 길은 방심(放心)을 구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바둑이나 장기는 마음을 쏟고 뜻을 다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이 또한 방심을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옛날에 이른바 노름이란 것도 이제 와서 고증할 길은 없지만, 내 생각에 또한 마땅히 법도와 형상이 담긴 바가 있어서 오늘날처럼 떠들썩하게 다투며 빼앗느라 위의(威儀)를 상실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춘추시대에 지금의 마작 같은 것이 있었다면 성인께서 어찌 이런 가르침을 내리셨겠는가? 그래서 나는 말한다. 책을 읽어 뜻을 풀이할 때에는 그 시대를 먼저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 홍석주, 「학강산필(鶴岡散筆)」 -

* 선유: 앞 시대의 유학자.

1. (가), (나)에 나타나 있는 ‘독서’와 관련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는 이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명정보다는 그 내용의 가치를 수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④ (나)에는 책에 나온 성현의 말씀이 바르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⑤ (나)에는 성현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 선유들의 견해를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2. (나)의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수행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 자신의 삶에 활용한다.
 - ②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③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④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 ⑤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나)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
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가 맺네
열매는 한창 쑥쑥 자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
반짝이는 광택 속
선연한 푸른 빛에서
조금씩 변하더니 **어느새**
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

가만히 보면
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
불과 일 년이지만 하늘 속에
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썄,
말 못하는 식물이 저런데
뚝뚝한 체 잘도 떠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니
허무라는 심연밖에 없더니라.
아, 가을!

- 박재삼, 「홍시(紅柿)를 보며」 -

(다)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 살아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
하루살이의 광무(狂舞)여

하루살이는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한다
-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
하루살이의 유희(遊戱)여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어찌면 이렇게 자연스러우나
소리 없이 기고 소리 없이 날으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가는 무수한 하루살이
- 그러나 나의 머리 위의 천장에서는 너의 소리가 들린다 -
하루살이의 반복(反覆)*이여

불 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여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여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에게로
모여드는 모여드는 하루살이
- 나의 시각(視覺)을 쉬이게 하라 -
하루살이의 황홀(恍惚)이여

- 김수영, 「하루살이」 -

* 반복: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주 고침.

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②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부정적 사회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4. **지조 높은 개**와 **말 못하는 식물**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
- ②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 ③ 외로운 심정을 심화시킨다.
- ④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대상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프게도’는 성장의 어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푸른 빛’과 ‘붉은 홍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성숙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느새’는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다음 행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자기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 ⑤ ‘아, 가을!’에는 탈속적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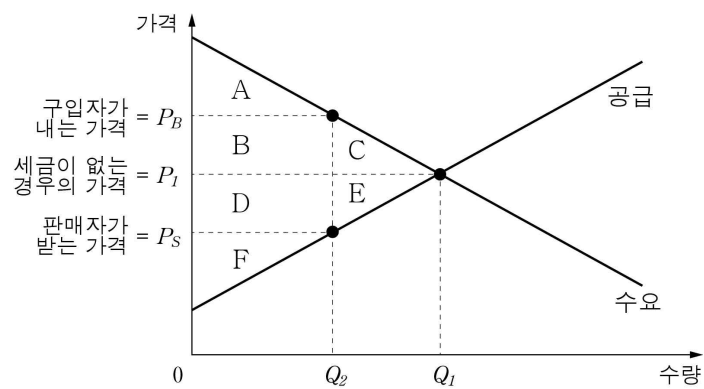
6. <보기>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점과 그에 대한 토의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의문점	토의 내용
하루살이의 움직임에 대한 시어를 ‘광무→유희→반복→황홀’로 달리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시어의 변화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2연에서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1연에서 ‘일손을 멈추고 무엇을 생각’하던 화자가 3연에서 하루살이의 자연스러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3연에서 ‘반복(反復)’과는 다른 ‘반복(反覆)’이라는 한자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 ‘같은 일을 되풀이함’의 뜻을 가진 어휘 대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꾸 고침’의 뜻을 가진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시적 자아의 심정을 드러내려는 것 같아. ㉢
4연에서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열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
이 시의 구성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 같은 형태의 구절이 매 연마다 반복되며, 대상에 관한 중요한 시어로 각 연을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

- ① ㉠ ② ㉡ ③ ㉢ ④ ㉣ ⑤ ㉤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프>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이다.

<그래프>에서 ㉠ 세금이 $\overline{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F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overline{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B+D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수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수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수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손실은 경제적 논쟁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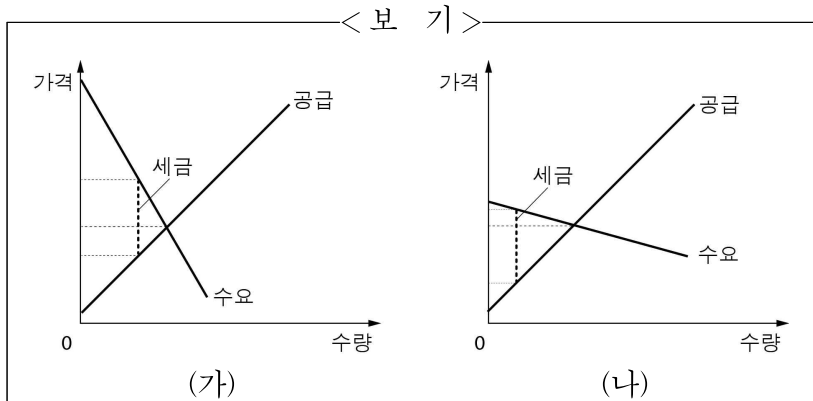
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 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 *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졌을 거야.

- ④ 6살 꼬마 ‘테이지’의 경우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의 길이는 당시 ‘벤자민’의 경우보다 짧다고 봐야 해.
- ⑤ 태어난 직후의 ‘벤자민’은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점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여.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남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관방에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남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군은 남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남자의 방에 들어가니, 남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남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친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남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남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남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외까?”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나이다.”

이어서 남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나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옵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려 했다.

이때 마침 상공이 동별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남자의 방에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혼자 말하기를,

“이상하도다. 남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오?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천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고?”

하며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거다.

남자는 시아버님이 문밖에서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아가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며 끝내 남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남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빠 숙소로 돌아가소서.”

하니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남자에게 물었다.

“네 남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네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노라. 그런데 또 어젯밤에 네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에 남자가 대답했다.

“밤이면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

누었나이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남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하여 매월을 따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하니 매월이 아뢰었다.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없나이다.”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어 말했다.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남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남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도다. 어떤 놈이 남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도다. 너는 남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남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자를 질투하던 첩 매월은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남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며 상공을 속인다.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남자를 심문한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남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나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곧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나이다. 게다가 남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분명하거늘,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나이까? 아무리 육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하며 목 놓아 쉽게 우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

그러나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재상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네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오?”

하고 하인에게 호령했다.

“각별히 엄하게 매질하라!”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남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

남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사이 낭군이 두 번 왔다 갔나이다. 낭군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겨우 삼 십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 저리 달래어 보냈나이다. 그런데 또 다음날 깊은 밤에 낭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나이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아뢰며, 또한 낭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낭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기절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5.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군’은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 ②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낭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 ③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낭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④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낭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 ⑤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낭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영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임신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 ①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낭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선군이 낭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 보러 떠나’는 것에서 임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낭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17. ㉠에 드러나는 ‘낭자’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